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Received: April 23 2026
Revised: June 05 2026
Accepted: June 08 2026

이지우¹, 양수진²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석사¹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E-MAIL: sujinyang@ewha.ac.k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Non-Marriage Orientation Scale

Jiwoo Lee¹, Sujin Yang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 해당 논문은 2025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
문화 및 사회문제 분과 포스터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결혼은 성인기 핵심 발달과업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을 선택적 생애 방식으로 보는 '비혼' 지향이 부상하고 있다. 비혼은 정체성·인지·정서·관계·제도적 차원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과정임에도, 심리적 구조에 대한 측정 도구가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발달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비혼주의 다차원 척도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와 FGI로 예비문항 도출 후, 연구 1과 연구 2에서 각각 25~40세 성인 500명을 독립표본으로 수집하였다. 연구 1에서는 EFA로 척도의 구성요인을, 연구 2에서는 CFA로 요인 구조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는 5요인(비혼 정체성·결혼 선택 인식·비혼 삶의 충족감·관계 개방성·결혼제도 비판의식)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내적 합치도와 수렴·변별 타당도가 양호하였다. 아울러 준거 관련 타당도가 지지되었고, 관련 변수 통제 후에도 결혼 의향에 대한 증분 설명력을 갖춰 구성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또한 MIMIC 분석 결과, 여성의 비혼 지향 수준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가족 형성 양상에 대한 실증 연구와 정책적 논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비혼주의, 삶의 방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지난 20여 년간 한국인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극적으로 변화해왔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6년 67.7%에서 2024년 52.5%로 감소하였고,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2년 61.8%에서 2022년 80.9%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을 필수적인 통과이레가 아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대로 갈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진미정, 성미애, 기쁘다, 2023).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비혼(非婚)’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하며 광범위하게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비혼’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미혼 상태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 결혼제도 밖에서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능동적 삶의 의지를 내포한다. 이에 비혼을 선언하고 축하받는 ‘비혼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례도 등장하고 있다(구유나, 2023).

이러한 변화는 성인기 발달 경로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은 성인기 초기 및 중기에 수행되는 핵심 발달 과업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세대 재생산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생애 구조를 재조직하는 전환적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다(Erikson, 1968).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 기간의 연장, 고용 불안정, 경력 개발 가치의 강화, 개인주의적 삶의 지향이 주요 생애 사건의 시기를 전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결혼 역시 전통적인 발달적 ‘사회적 시계(social clock)’로부터 점차 이탈하는 양상을 보인다(Yang et al., 2025). 특히 청년기의 경제적 부담, 성인기 전환의 불확실성은 결혼 시기의 지속적 연기를 넘어, 결혼을 생애 경로에서 아예 제외

하거나 재정의하려는 능동적 선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혼은 결혼의 단순한 유보가 아니라, 성인기 발달 과업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비혼주의의 확산은 개인적 선택의 차원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 현상이다. 비혼주의는 정체성 인식, 결혼관, 관계적 지향, 정서적 경험을 포함하는 다면적 개념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 탐색 없이는 현상의 복잡성과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양상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비혼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혼’, ‘미혼’, ‘독신’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비혼주의 고유의 특성을 규명하고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결혼에 대한 태도와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동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비혼주의는 결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태도이자 신념(Stein, 1975)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발달 경로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개념적 모호성을 정리하고, 비혼주의의 구성요소와 그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비혼주의의 개념 정의 및 주요 이론적 배경

비혼(non-marriage)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미혼(single)’이나 ‘독신(celebracy)’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나 장래 결혼 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이며, ‘독신’은 종교적·철학적 이유로 결혼하지 않거나 단순히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한혜림, 이지민, 2020). 반면 ‘비혼’은 결혼 여부를 개인이 능동적으로 선

택할 수 있음을 반영하며, 기존의 결혼중심적 사회 규범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2010; 이정하, 박정윤, 윤나나, 2017; 정문경,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혼주의를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한 삶에 대한 지속적, 자율적 신념체계'로 정의하며, 이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비혼주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독신 연구의 이론적 틀을 발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Stein(1981)은 독신을 자발성(voluntariness)과 지속성(stability)의 두 축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발성은 독신 상태가 개인의 의도적 선택인지 외부적 제약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차원이다. 지속성은 독신 상태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독신은 자발적-일시적, 자발적-지속적, 비자발적-일시적, 비자발적-지속적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자발적-지속적 독신은 개인의 능동적 선택에 기반하며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독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비혼주의 지향과 가장 밀접한 유형이다.

그러나 Stein(1981)의 독신 분류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독신 경험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Reynolds, Wetherell, & Taylor, 2007). 특히 독신 상태에 이르게 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며, 성인기 생애 경로에서 비혼이 갖는 발달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발적-지속적 독신 유형은 결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깊이나 비혼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내면화하는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 반면 비혼주의는 정체성, 인지, 정서, 관계, 제도적 차원이 통합

된 다차원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비혼은 Stein(1981)의 자발적-지속적 독신 유형과 일부 중첩되는 면이 있으나, 성인기 발달 과업의 능동적 재구성이라는 보다 복합적인 차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울러 비혼주의는 단순한 결혼 의향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Park과 Rosen(2013)은 결혼 의향,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관계에 대한 기대를 각각 별도의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결혼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이 다양한 층위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르면 결혼 의향은 결혼에 대한 행동적 의사결정에 방점을 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비혼주의는 단순히 결혼 의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혼 제도와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 친밀한 관계 형성 방식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가치 체계이다. 즉 비혼주의는 결혼 의향을 포함해 삶의 양식에 대한 능동적 선택을 드러내며,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비판적 태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 개별성을 우선시하는 성향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강은영 등, 2010; 이정하 등, 2017).

비혼주의와 관련된 요인들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한부모 가족, 동거 커플, 동성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수용은 비혼주의 지향을 촉진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동거 커플에게 가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제도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생활동반자법 또한 발의 및 논의되고 있다(황두영, 2024). 개인 인식 차원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

과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증가하여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실증 연구에서도 가족 다양성 수용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자발적 비혼 유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영 등, 2010).

자율성 중시

비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지닌 개인일수록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1인 가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자율성은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을 온전히 개인의 뜻에 따라 결정하려는 개인 내적 특성을 의미하며(정승환, 장형심, 2015), 자율성을 중시하는 특성은 비혼주의를 지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립적 거주를 선호하는 개인 역시 비전통적 결혼관과 낮은 결혼 의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는데(강유진, 2023; 김소정, 2022), 이러한 독립적 거주 선호 역시 자율성 지향의 행동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정하 등(2017)은 비혼주의자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비혼 생활에서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Timonen과 Doyle(2014) 역시 비혼을 선택한 개인들이 자율성을 중시하며, 자신의 커리어와 자기계발, 개인적 관심사를 적극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율성 지향은 성인기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개인이 전통적 생애 각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다.

비혼에 대한 정서적 태도

비혼에 대한 정서적 태도 역시 비혼주의 지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혼을 결핍이 아닌 온전한

삶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비혼주의 지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 독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비혼 선택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현재 혹은 미래에 연인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한 걱정, 불안, 고통이 큰 개인은 관계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상태를 지속하려고 한다(Spielmann, MacDonald, Maxwell, Joel, Peragine, Muise, & Impett, 2013). Park, MacDonald, Impett과 Neel(2023)은 독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며, 연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즉 독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비혼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정도를 낮출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적 가족주의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 가족주의는 성 역할 규범과 결혼 중심 문화를 통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며, 비혼주의 지향을 제한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작용한다(김은지, 김효정, 2023). 전통적 가족주의 기반의 결혼 중심 사회에서 비혼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수반하기도 한다(김순남, 2016).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남성은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여성은 가족 돌봄의 책임을 요구받는 경향이 있으며(임혜경, 최금순, 2020; 문지선, 2021), 특히 중하위 계층일수록 이러한 성 역할 규범을 더욱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개인은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와 성 역할 규범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데, 일부 개인에게는 가족 내 성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으로 경험되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강유진, 2023; 최선영

등, 2022). 반면 일부 개인은 전통적 가족주의에 대해 인지적으로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느껴, 비혼주의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김순남, 2016). 즉 사회적 규범이나 압력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혼 및 비혼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비혼주의의 인지적·관계적·정서적 특성

앞서 살펴본 가족 다양성 수용도, 자율성 중시, 비혼에 대한 정서적 태도, 전통적 가족주의는 비혼주의와의 관련 변인으로서 검토한 것이며, 이와 구분하여 아래에서는 비혼주의가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심리적 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성인기 발달 경험의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비혼주의의 핵심 구성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의 비혼주의는 자율성 중시 및 전통적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즉, 비혼주의는 자율성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자신의 성향을 인식하고, 결혼과 가족 중심의 사회 규범이 개인의 삶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의식과 맞물려 결혼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혼 생활은 단순한 결혼 기피가 아니라, 전통적 가족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Kislev(2024)는 비혼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내면화한 개인은 연인 관계에서도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상대방과의 개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순남(2016) 역시 독립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개인이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의한 불안을 견디면서 비혼을 지속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성인기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개인이 자율성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통합해 가는 발달적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 관계적 측면에서의 비혼주의는 전통적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태도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는 연애나 동거 중심의 관계, 입양을 통한 가족 형성, 친밀한 지인들과의 공동체 생활 등 기존의 혼인 중심 가족 구조를 대체하는 다양한 관계 양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 개방성은 친밀감과 돌봄을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나간다는 점에서 비혼주의의 핵심 특성 중 하나이다. Girme, Park과 MacDonald(2023)는 비혼주의자가 높은 주관적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와 같은 관계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Erikson(1968)이 제시한 성인기 친밀감 과업이 반드시 결혼이라는 단일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 구조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계적 측면에서의 비혼주의는 가족주의, 이성애 규범, 성 역할 규범, 혼인·출산 중심의 생애 경로에 대한 대안적 삶의 양식이자, 개인이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 친밀감과 사회적 지지를 형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정서적 측면에서의 비혼주의는 비혼 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만족감, 정서적 애착, 그리고 독신 상태에 대한 낮은 두려움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에 따르면 자율성 욕구가 충족될 때 개인은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만족을 경험한다(Yu, Levesque-Bristol, & Maeda, 2018). 특히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개인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원하는 삶의 방식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안녕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한혜림, 이지민, 2020). 또한 비혼 생활은 사회적 연결망과의 적극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은실, 2023). 따라서 비혼주의의 정서적 차원은 비혼 생활에서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정서적 만족감,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정감에 초점을 두어 평가될 수 있다.

비혼주의 척도의 개발 필요성 및 방향

이러한 비혼주의의 다차원적 특성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비혼주의보다는 결혼 의도 및 태도 측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마저도 국외에서 개발한 결혼태도 척도(Braaten & Rosen, 1998)와 독신태도 척도(Tan, Cheng, & George, 2021)는 한국 사회의 결혼 및 가족 제도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이에 대한 개인의 대응 방식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20여 년 전에 개발된 한국형 결혼관 척도(남순현, 2007)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결혼관의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김은하, 최혜윤과 권민혁(2019)의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는 대다수 문항이 ‘~하지만, ~한다’ 구조의 복합 문항(double-barreled item)으로, 하나의 문항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동시에 물어 응답자가 전후반부에 상이한 태도를 지닐 경우 이를 단일 응답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측정학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혼주의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다차원적으로 탐색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자 한다. 특히 비혼주의는 성인기 발달 경로의 능동적 재구성 관점에서 자율성 추구에 대한

인식, 결혼 제도에 대한 비판의식, 관계적 지향, 정서적 경험이 통합된 복합적 개념임을 고려하여, 비혼주의의 다면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척도 개발 후 선행연구에서 비혼주의의 각 차원과 이론적으로 밀접한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을 준거로 설정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독신은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뜻하는 반면, 비혼주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정체성으로서 인지적·관계적·정서적 차원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따라서 모든 독신이 비혼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비자발적 독신이나 일시적 독신은 비혼주의와 구별된다. 독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결혼을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비혼주의 지향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독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독신을 결핍이 아닌 온전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다(DePaulo & Morris, 2005). 독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비혼 생활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신하은, 김나현, 이재림, 2024; Tan et al., 2021), 비혼주의를 지향하는 개인은 자신의 독신 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 김태우, 2016). 즉, 독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을 선택적 생애 방식으로 보는 인식과 맞닿아 있으며, 비혼주의 성향과 정적 상관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독신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결혼 지향성과 맞닿아 있어, 비혼주의 지향과 부적 상관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독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 혹은 미래에 연인이 없는 것에 대한 정서적 고통, 불안을 의미한다(Spielmann et al., 2013). 이것이 높은 개인은 비록 관계의 질이 낮더

라도 연애를 지속하거나 부적절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발적 비혼 선택과는 부적 상관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Apostolou, Tekes, & Kagialis, 2024). 또한 가족 중심 가치관은 가족을 개인이나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거나(가족 우선성), 성 역할 분담 등에 있어 전통적 가족 구조를 따르려는 태도(전통성)를 포함한다(Carr, 2001). 가족 중심 가치관을 지닌 개인은 더욱 보수적인 결혼관을 지니고 비혼 의향이 낮은 경향이 있다(김화선, 2017; 신하은 등, 2024). 따라서 가족 중심 가치관을 지닐수록 비혼주의를 지향하는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가족 다양성 수용도는 전통적 핵가족 형태를 넘어 무자녀 부부, 비혼 동거, 팻팍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 정도를 뜻한다(조선미 등, 2023). 비혼주의 역시 법률혼으로 구성된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더욱 유연하게 수용하는 삶의 방식이므로, 진보적인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지니며 가족 다양성 수용도가 높을수록 비혼주의 지향 정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Byoun, Choi, & Kim., 2021). 이와 유사하게 비전형적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 역시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인식하는 태도로(Vikat et al., 2007), 비혼주의가 가진 결혼에 대한 선택적 인식, 결혼제도 기저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비전형적 결혼·출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개인은 전통적 결혼제도에 구속되지 않는 삶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비혼주의 지향과 정적 상관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 경로가 다양화되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비혼주의 구성요인을 다차원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

여, 20~30대 청년층의 변화된 결혼관을 반영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문제 1. 비혼주의 척도는 어떤 구성개념을 가지는가?

연구 문제 2. 개발된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는 타당하고 신뢰로운가?

연구 1

연구 1에서는 개인이 결혼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이유와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고, 문항 양호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예비 요인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예비문항 개발을 위한 탐색적 단계에서는, 파일럿 인터뷰 대상자 3명을 포함하여, 비혼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20~30대 미혼 남녀 13명($M = 26.08$ 세, $SD = 4.27$, 여성 84.6%)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남녀 500명($M = 31.66$ 세, $SD = 4.45$, 여성 5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 = 1,000)

| 특성 | 연구 1 (N = 500) | 연구 2 (N = 500) |
|-----------------|-------------------|-------------------|
| 성별 | | |
| 남성 | 250 (50%) | 250 (50.0%) |
| 여성 | 250 (50%) | 250 (50.0%) |
| 연령 | | |
| 25~29세 | 221 (44.2%) | 221 (44.2%) |
| 30~35세 | 153 (30.6%) | 133 (26.6%) |
| 36~40세 | 126 (25.2%) | 146 (29.2%) |
| 최종 학력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6 (9.2%) | 53 (10.6%) |
| 전문대(2-3년제) 졸업 | 82 (16.4%) | 76 (15.2%) |
| 대학교(4년제) 졸업 | 332 (66.4%) | 326 (65.2%) |
| 대학원 졸업 이상 | 40 (8.0%) | 45 (9.0%) |
| 연애 경험 유무 | | |
| 연애경험 있음 | 372 (74.4%) | 365 (73.0%) |
| 연애경험 없음 | 128 (25.6%) | 135 (27.0%) |
| 월 소득 | | |
| 100만원 미만 | 101 (20.2%) | 89 (17.8%) |
| 100만원~200만원 | 45 (9.0%) | 36 (7.2%) |
| 200만원~300만원 | 175 (35.0%) | 162 (32.4%) |
| 300만원~400만원 | 95 (19.0%) | 127 (25.4%) |
| 400만원~500만원 | 33 (6.6%) | 43 (8.6%) |
| 500만원~600만원 | 15 (3.0%) | 16 (3.2%) |
| 600만원~700만원 | 9 (1.8%) | 10 (2.0%) |
| 700만원~800만원 | 10 (2.0%) | 7 (1.4%) |
| 800만원 이상 | 17 (3.4%) | 10 (2.0%) |
| 직업 | | |
| 관리자 | 8 (1.6%) | 8 (1.6%) |
| 전문가·관련 종사자 | 39 (7.8%) | 46 (9.2%) |
| 사무 종사자 | 229 (45.8%) | 254 (50.8%) |
| 서비스 종사자 | 52 (10.4%) | 30 (6.0%) |
| 판매 종사자 | 8 (1.6%) | 15 (3.0%) |
| 학생 | 30 (6.0%) | 24 (4.8%) |
| 무직 | 80 (16.0%) | 72 (14.4%) |
| 기타 | 54 (10.8%) | 51 (10.2%) |

예비문항 개발 과정

선행연구 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척도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인터뷰 전사본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오픈 코딩한 후, 유사한 맥락의 코딩을 묶어 각 테마로 재구성하는 주제분석(Braun & Clarke, 2012)을 실시하였다. 유사한 테마를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개발한 예비문항에 대하여 발달 및 발달임상심리학과 교수 1인과 대학원생 1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문항의 필수성을 3점 척도(1=필수적이다, 3=불필요하다)로 평정하여 각 문항별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이하 CVR)을 산출하였다. CVR이 0.59 미만인 경우(Lawshe, 1975) 해당 문항의 수정 및 삭제를 고려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ewha-202504-0026-01). 온라인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한 20~30대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온라인 설문 전문 기관을 통해 25~40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예비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자는 패널 모집을 기반으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할당표집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FGI 및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목적,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응답 익명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2.0과 Mplus 8.3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SPSS를 사용해 기술 통계와 문항 분석을 실시하고,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총점 간 상관, 왜도 및 첨도(절댓값이 각각 3과 10 미만)를 살펴 분포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Kline, 2011). 5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이 1.5 미만이거나 4.5를 초과하는 문항, 표준편차가 0.7 미만인 문항은 변별력이 낮아 삭제를 고려하였다. 또한 각 문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가 0.3 미만이거나 0.7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삭제를 검토하였다(Meir & Gati, 1981).

이후 비혼주의 척도의 구성개념과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Mplus 8.3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이하 EFA)을 실시하였다. 먼저 Kaiser-Meyer-Olkin(KMO) 검정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요인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고, 요인 간 상관을 허용하기 위해 Geomin 회전을 적용하였다(Schmitt & Sass, 2011). 요인 수는 고유값, 문항 수, 스크리 도표, 공통성, 이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모든 요인에서 부하량이 .40 미만이거나, 공통성이 .40 미만이거나, 가장 높은 부하량과 다른 요인의 부하량 차이가 2배 미만인 문항은 제거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다(Hinkin, 1998).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통해 평가하였다(Kline, 2011).

결 과

문항 및 신뢰도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사본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주제분석을 통해 213개의 코딩을 도출하였다. 코딩은 17개의 테마로 분류되었고, 유사 테마를 통합하여 9개의 상위 개념(예: 자발성, 개별성 및 비혼 정체성 추구, 결혼제도 비판의식)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분석과 문항 검토를 거쳐 총 42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Kline(2011)과 탁진국(2007)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별도로 삭제된 문항은 없었다.

탐색적 요인분석(EFA)

Kaiser-Meyer-Olkin(KMO) 검정 결과 .966으로 매우 우수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861) = 16227.85, p < .001$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우도법과 Geomin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과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적합도 지수는 RMSEA = 0.054, TLI = 0.921, SRMR = 0.023으로 양호한 수준이었고(Asparouhov & Muthén, 2009), 모델은 총 분산의 64.6%를 설명하였다. 요인부하량 또는 공통성이 .40 미만인 문항, 요인 간 부하량 차이가 2배 미만인 문항을 제외한 후 총 24문항이 선정되었다. 도출된 5개 요인은 각각 '비혼 정체성(Non-Marital Orientation)', '결혼 선택 인식(Marriage as a Choice)', '비혼 삶의 충족감(Non-Marital Fulfillment)', '관계 개방성(Openness to Non-Marital Relationship)',

표 2.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의 문항 및 요인부하량 (N = 500)

| 문항 | 요인부하량 | | | | |
|--|---------|--------|--------|--------|--------|
| | 1 | 2 | 3 | 4 | 5 |
| 1.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 0.867* | -0.041 | 0.084 | -0.007 | 0.01 |
| 2. 나는 비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 0.711* | 0.113* | -0.033 | 0.024 | 0.005 |
| 3. 나는 결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R) | 0.850* | -0.009 | -0.018 | -0.027 | 0.041 |
| 4. 나는 앞으로도 계속 비혼으로 살 것이다. | 0.817* | 0.163* | 0.02 | -0.016 | -0.013 |
| 5. 나는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다. | 0.741* | -0.033 | 0.095 | 0.125* | 0.03 |
| 6. 비혼은 나의 가치관에 맞는 삶의 방식이다. | 0.600* | 0.208* | 0.163* | 0.018 | 0.011 |
| 7. 나는 결혼생활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 0.582* | 0.270* | 0.031 | -0.028 | 0.130* |
| 8. 나는 비혼을 통해 나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싶다. | 0.565* | 0.158* | 0.196* | 0.047 | 0.090* |
| 9. 나는 결혼하지 않고도 충분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111 | 0.718* | 0.002 | 0.161* | -0.059 |
| 10. 나는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0.176* | 0.710* | -0.009 | 0.069 | 0.03 |
| 11. 나는 결혼하지 않고도 성숙하고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046 | 0.673* | 0.05 | 0.161* | -0.007 |
| 12. 결혼하지 않는 삶도 자연스러운 삶이다. | -0.180* | 0.591* | 0.156* | 0.167* | 0.039 |
| 13. 혼자 사는 것이 결혼생활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0.166* | 0.160* | 0.591* | -0.068 | 0.047 |
| 14. 나는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비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 0.294* | 0.012 | 0.598* | 0.014 | -0.07 |
| 15. 결혼보다는 나의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다. | 0.046 | 0.094 | 0.534* | 0.154* | 0.102* |
| 16. 비혼의 삶은 결혼생활보다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 0.009 | 0.031 | 0.756* | 0.036 | 0.013 |
| 17. 나의 직업적 성장과 발전이 결혼보다 중요하다. | 0.037 | -0.026 | 0.737* | 0.077 | -0.04 |
| 18. 비혼임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누릴 수 있다. | 0.058 | 0.103 | 0.017 | 0.545* | 0.125* |
| 19. 결혼하지 않고도 친구나 공동체가 결혼을 통한 가족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 0.139* | 0.107 | 0.149* | 0.525* | 0.046 |
| 20. 결혼하지 않고도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082* | 0.092 | 0.021 | 0.785* | 0.008 |
| 21.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도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남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016 | -0.055 | 0.103 | 0.772* | 0.015 |
| 22. 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한 성 역할을 견디고 싶지 않다. | 0.065 | 0.220* | -0.04 | 0.180* | 0.569* |
| 23. 결혼하면 가족과 자식을 위한 희생을 강요당할까봐 두렵다. | 0.016 | 0.009 | 0.184* | 0.037 | 0.706* |
| 24. 미디어에서 다루지는 불행한 결혼생활이 나의 미래가 될까 봐 두렵다. | -0.029 | -0.004 | 0.051 | 0.028 | 0.739* |

주. (R)은 역채점 문항(reverse-coded item)을 의미함

주. 요인 1=비혼 정체성, 요인 2=결혼 선택 인식, 요인 3=비혼 삶의 충족감, 요인 4=관계 개방성, 요인 5=결혼제도 비판의식

‘결혼제도 비판의식(Critical View of Marriage)’으로 명명하였다(표 2 참조).

문항 양호도 및 신뢰도 분석

전체 2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58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비혼 정체성’ .955, ‘결혼 선택 인식’ .875, ‘비혼 삶의 충족감’ .890, ‘관계 개방성’ .801, ‘결혼제도 비판의식’ .809로 모두 .80 이상이었다. 각 문항과 총점 간 상관은 .451 ~ .849로 문항 양호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하위요인 모두 전체 척도 평균과 높은 상관($r = .71 \sim .91$)을 나타냈다.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47 ~ .78로, 이는 각 요인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공통의 상위 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표 3 참조).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의 요인 구조가 독립 표본에서도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

다. 또한,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성개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고, 결혼 의향에 대한 증분 타당도를 검토함으로써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지표 다중원인(MIMIC) 모형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비혼 지향의 잠재평균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연구 2는 연구 1과 다른 독립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만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남녀 50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1.91세($SD = 4.56$)였고 여성이 50%였다. 연구 1과 동일한 모집 및 표집 절차를 따랐다(표 1 참고).

비혼주의

비혼주의 척도는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는 비혼 정체성, 결혼 선택 인식, 비혼 삶의

표 3.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및 신뢰도

| | 1 | 2 | 3 | 4 | 5 |
|---------------------|--------|--------|--------|--------|------|
| 1. 비혼 정체성 | - | | | | |
| 2. 결혼 선택 인식 | .658** | - | | | |
| 3. 비혼 삶의 충족감 | .561** | .568** | - | | |
| 4. 관계 개방성 | .782** | .679** | .676** | - | |
| 5. 결혼제도 비판의식 | .469** | .615** | .544** | .586** | - |
| Cronbach's α | .955 | .875 | .890 | .801 | .809 |

** $p < .01$

충족감, 관계 개방성, 결혼제도 비판의식의 5개 요인으로 이루어지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혼주의 지향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8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비혼 정체성' .955, '결혼 선택 인식' .875, '비혼 삶의 충족감' .890, '관계 개방성' .801, '결혼제도 비판의식' .809이다.

독신에 대한 태도

Tan 등(2021)이 개발한 독신에 대한 태도 척도(AtSS)를 활용하여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AtSS는 세 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차원, 행동적 차원, 인지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님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AtSS .93, 정서적 차원 .90, 행동적 차원 .79, 인지적 차원 .85이다.

가족 다양성 수용도

조선미 등(2023)이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사용한 가족 다양성 수용도 관련 4개 문항을 활용하여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문항은 단일 요인 구조이며,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5이다.

비전형적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Vikat 등(2007)이 개발한 가족·출산

태도 모듈 중 비전형적 결혼·출산 태도 관련 문항 3개를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비혼 동거 및 혼외 출산에 대한 태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전형적 결혼·출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님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69이다.

독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해 Spielmann 등(2013)의 독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척도(FOBS)를 사용하였다. FOBS는 6 문항 단일 요인 구조이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독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Spielmann 등(2013)의 연구에서는 .86이고, 본 연구에서는 .79이다. 현재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가족 중심 가치관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Carr(2001)가 개발한 가족 가치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7점 Likert 척도이며, 가족 우선성(FP) 13문항과 전통성(T) 14문항으로 구성된다. FP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높고, T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가족 가치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는 Carr(2001)에서 FP .90, T .76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1과 .83이다.

결혼 의향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의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Park과 Rosen(2013)의 결혼의도척도(IMS)를 활용하였다. IMS는 3문항으로 구성되며,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는 Park과 Rosen(2013)의 연구에서는 .91, 본 연구에서는 .94이다. 현재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절차

연구 2는 연구 1과 동일한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에 수행되었으며, 연구 1과 별개의 독립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 전문 기관을 통해 25~40세 미혼 남녀를 모집하였고, 연구 1에서 확정된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와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한 관련 척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 방식 및 참여자 안내·동의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자료분석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χ^2 통계의 표본 크기 민감성을 보완하기 위해 CFI, RMSEA, SRMR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CFI \geq .90$, $RMSEA \leq .08$, $SRMR \leq .08$ 로 설정하였으며(Hu & Bentler, 1999), 이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함께 검증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각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지(Brown, 2015), 변별 타당도는 하위요인 간 상관성이 .90 미만인지(Kline, 2011)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준거 관련 타당도는 독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족 다양성 수용도, 비전형적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 가족 중심 가치관, 독신에 대한 두려움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독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 의향에 대한 비혼주의 척도의 추가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비혼주의 5개 잠재요인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지표 다중원인(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MIMIC) 모형을 적용하였다. MIMIC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확장 기법으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지표와 외생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여 집단 간 차이를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혼입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Muthén, 1989).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5개 잠재요인을 예측하는 경로만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성별이 각 관찰 지표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추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은 잠재요인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를 추정하는 데 목적을 두며, 성별 간 측정동일성(scalar invariance)에 대한 정식 검증은 수행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5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독립된 표본($N = 500$)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242) = 878.124$, $p < .001$ 로 모형이 통계적으로 부적합했으나, χ^2 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근사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Klin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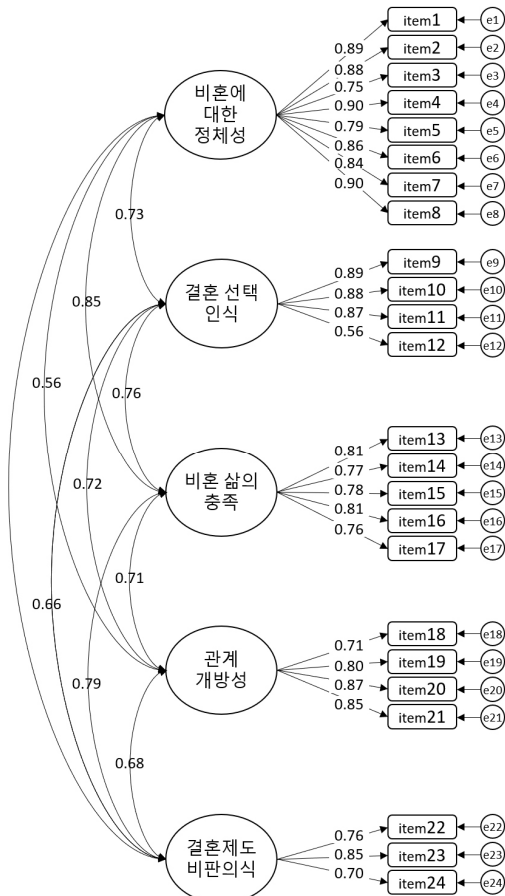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추정치

RMSEA = .073, CFI = .932, SRMR = .04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는 우수한 수준이었다 (Hu & Bentler, 1999). 전체 24문항의 요인부하량 범위는 .56 ~ .90으로, 모든 문항이 .40 이상이며 대부분 .70 이상으로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추정치는 그림 1과 같다.

요인 간 상관은 .56~.85로 나타나, 각 요인의 변별 타당성도 확보되었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5였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도 .80 이상으로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비혼 정체성 .96, 결혼 선택 인식 .88, 비혼 삶의 충족 .89, 관계 개방성 .80, 결혼제도 비판의식 .81).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비혼주의 척도와 선행 연구에서 관련성이 보고된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혼주의 총점 및 하위요인은 독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족 다양성 수용도, 비전형적 결혼·출산 태도, 가족 가치관(가족 우선성, 전통성), 독신에 대한 두려움

표 4. 비혼주의와 준거 변인 간 상관

| | 독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 가족 다양성 수용도 | 비전형적 결혼·출산 태도 | 가족 가치관 | | 독신에 대한 두려움 | |
|----------|---------------|------------|---------------|---------|---------|------------|---------|
| | | | | 가족 우선성 | 전통성 | | |
| 비혼주의 | .82*** | .43*** | .23*** | -.67*** | -.36*** | -.27*** | |
| 하위 요인 | 1. 비혼 정체성 | .76*** | .35*** | .19*** | -.62*** | -.25*** | -.26*** |
| | 2. 결혼 선택 인식 | .72*** | .32*** | .17*** | -.62*** | -.45*** | -.26*** |
| | 3. 비혼 삶의 충족 | .79*** | .36*** | .17*** | -.59*** | -.25*** | -.22*** |
| | 4. 관계 개방성 | .50*** | .50*** | .38*** | -.43*** | -.39** | -.21*** |
| | 5. 결혼제도 비판의식 | .57*** | .28*** | .10** | -.48*** | -.30*** | -.10** |

*** $p < .001$ ** $p < .01$

표 5. 결혼 의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단계 | 예측변수 | B | SE | β | t | ΔR^2 |
|----|-----------|--------|------|---------|------------|--------------|
| 1 | 연령 | -.046 | .017 | -.123 | -2.792* | .060*** |
| | 최종학력 | .248 | .097 | .117 | 2.568* | |
| | SES | .125 | .045 | .129 | 2.813* | |
| 2 | 독신에 대한 태도 | -1.010 | .044 | -.698 | -22.922*** | .484*** |
| 3 | 비혼주의 | -1.351 | .098 | -.635 | -13.824*** | .127*** |

*** $p < .001$, * $p < .05$

관을 보인 반면, 가족 중심 가치관(가족 우선성, 전통성) 및 독신에 대한 두려움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결혼 의향에 대한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월평균 개인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최종학력, 연애경험 유무)를 1단계로 투입하였으나, 성별, 소득, 연애경험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2단계에서 독신에 대한 태도를 통제한 후 3단계에서 비혼주의 변인을 추가 투입했을 때, 결혼 의향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Delta R^2 = .127$, $\beta = -.635$, $p < .001$). 이는 본 척도가 기존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낮은 결혼 의향을 독립적으로 설명함을 시사한다(표 5 참조).

비혼주의에서의 성차

성별에 따른 비혼주의 5개 잠재요인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MIMIC 모형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였다($\chi^2 = 953.68$, $p < .001$, CFI = 0.928, RMSEA = 0.073, SR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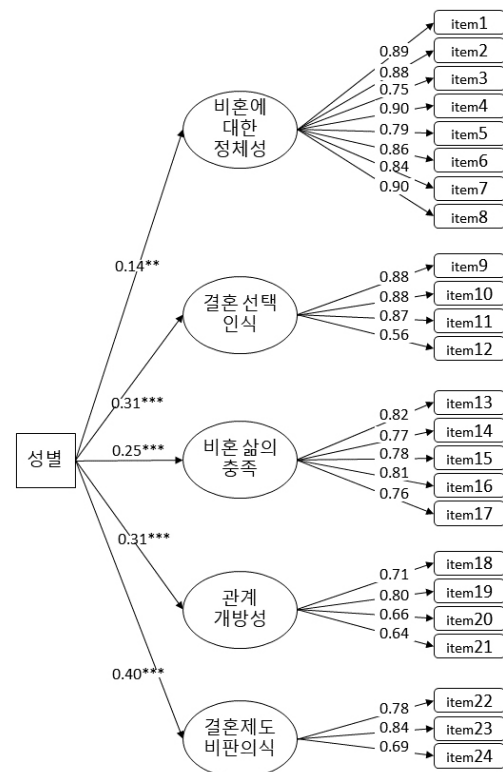


그림 2. MIMIC 분석 결과 (N = 500)

** $p < .01$ *** $p < .001$

= 0.049). 모든 비혼주의 하위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잠재평균을 보였다(그림 2 참조).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비혼주의의 심리적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문헌 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한 뒤,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24문항으로 구성된 5요인 구조의 척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5요인은 성인기 발달 경로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체성·인지·정서·관계·제도적 차원을 포괄한다. 첫째, '비혼 정체성'은 비혼을 자아 개념의 핵심으로 내면화한 정도를 가리킨다.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와 같은 문항은 비혼이 일시적 상태가 아니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자기주도적 방향성임을 시사한다. Erikson(1968)은 정체성 형성이 청소년기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개인이 맡는 역할과 선택을 통해 계속해서 재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성인기의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양식 안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기 개념을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만이 성인기 정체성 과업의 유일한 경로는 아니며, 비혼이라는 선택 역시 정체성의 한 형태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둘째, '결혼 선택 인식'은 결혼을 사회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나는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요인은 결혼을 선택 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 재정의하는 인지적 전환을 보여준다. 셋째, '비혼 삶의 충족감'은 비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족감과 자아실현에 따른 충족감을 나타낸다. '결혼보다는 나의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다', '비혼의 삶은 결혼생활보다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이는 비혼

주의가 단순한 결혼 회피가 아닌, 자율성 추구 및 자아실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관계 개방성'은 전통적 결혼제도를 넘어서 다양한 관계 형태에 대한 수용도를 의미한다. '결혼하지 않고도 친구나 공동체가 결혼을 통한 가족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법적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 유연하고 다원적인 관계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성인기 친밀감 과업이 혼인 중심 가족 내에서만이 아니라 선택적 공동체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결혼 제도 비판의식'은 전통적 결혼제도 및 사회 규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한다. '결혼을 하면 가족과 자식을 위한 희생을 강요당할까 봐 두렵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결혼제도가 개인에게 가하는 구조적 제약과 성 역할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종합하면, 비혼주의는 정체성 인식, 인지적 자율성, 정서적 만족, 관계적 유연성, 제도적 성찰을 포괄하는 성인기 발달 경로의 대안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차원 비혼주의 척도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관련 변인들과 상관을 보여 공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특히 독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비혼주의 척도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비혼주의는 단순히 결혼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독신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임을 시사한다. 이는 결혼을 '정상 경로'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내면화할수록 독신 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힌 선행연구(Girme et al., 2023)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본 연구의 FGI 참여자들 역시 비혼을

주체적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데 피로감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는 비혼주의를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개인의 비혼 결정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 우선성 및 전통적 가족 가치관 역시 비혼주의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선행연구(김화선, 2017)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척도의 증분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결혼 의향을 예측함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독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비혼주의가 유의미한 추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혼 삶의 지향이 결혼 의향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함을 의미하며, 본 척도가 기존의 독신 태도 측정 도구와 구분되는 심리적 속성을 포착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성차를 확인한 결과,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성의 잠재평균 점수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혼 지향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인구보건복지협회, 2025)와도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혼제도 비판의식’ 하위요인에서 여성의 잠재평균 점수가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전통적 결혼 및 가족 제도에 대한 변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보다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여성이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결혼 제도가 요구하는 역할 규범과 자신의 발달적 자기 구성 사이의 긴장을 더 첨예하게 경험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

존 연구에서 개념적 합의가 부족하던 비혼의 정의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비혼의 5가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존에 혼용되던 독신(Singlehood)과 비혼(Non-Marriage)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혼을 결혼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고 유지하는 태도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비혼을 지향하는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기존 연구(Girme et al., 2023)에 기반하여, 비혼 정체성, 결혼 선택 인식, 비혼 삶의 충족감, 관계 개방성, 결혼제도 비판의식이라는 5가지 구성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비혼을 지향하는 집단 내 개인차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이론적 발판을 제공하였다.

둘째, 비혼에 대한 기존 논의가 사회학·인구학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비혼을 성인기 발달 경로의 능동적 재구성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비혼 정체성’, ‘결혼 선택 인식’, ‘비혼 삶의 충족감’ 요인은 한국 사회의 결혼 중심 문화의 재고 필요성을, ‘결혼제도 비판의식’ 요인은 결혼제도 내 성 역할에 따른 희생과 억압을 반영한다. 이는 육아·가사 참여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촘촘한 보육 지원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비혼주의를 지향하는 정도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변화하는 성 역할과 가족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였다. 이는 성별에 따라 비혼 선택의 심리·사회적 맥락이 상이함을 시사하며, 성별을 고려한 비혼 맞춤형 정책적 지원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유교적 가족주

의와 결혼 중심 문화가 비혼주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과 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권 간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본 척도의 문화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척도 수정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성인기 발달 과정에서 비혼 지향이 어떻게 형성·변화하는지를 추적하지 못하였다. 향후 종단 연구를 통해 연령 증가, 생애 사건(예: 이직, 부모의 은퇴), 파트너십 경험에 따라 비혼 정체성이 공고화되거나 재협상되는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전검사이론(CTT; Classical Test Theory)에 기반한 현재 척도는 개별 문항의 특성과 정보 제공량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IRT; Item Response Theory) 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비혼 지향 수준에 따라 문항이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종 척도가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비혼에 대한 긍정 진술로 구성되어 응답자의 긍정 편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비문항 개발 단계에서는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을 균형 있게 구성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EFA) 결과, 대부분의 역문항이 교차부하량 또는 공통성(Communality)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거되었다. 이는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문항 정제 과정에서의 통계적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역문항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등 긍정 편향을 통제하기 위한 문항 설계를 통해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와 일부 하위요인 간 상관성이 높아 요인 간 변별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쌍요인(Bifactor) 모형을 통해 일반요인과 집단요인을 동시에 추정하고, 현재의 비혼주의 5요인 모형과 비교해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척도의 일부 문항 쌍에서 잔차 공분산이 높으며, 특히 '비혼 정체성' 요인 내에서 높은 내적합치도를 보여 구성개념을 중복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문항 간 상관, 잔차 공분산 및 수정지수를 확인하여 중복 문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MIMIC 모형은 성별이 잠재요인을 예측하는 경로만을 포함하였으며, 성별이 각 관찰 지표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성별 간 측정동일성(특히 scalar invariance)에 대한 정식 검증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관찰된 잠재평균의 성차가 비혼 지향 수준의 실제 차이를 반영하는지, 혹은 일부 문항이 남녀에게 다르게 작동한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configural, metric, scalar 단계의 측정동일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본 척도의 성별 비교 타당성을 보다 엄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유진 (2023). 누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가: 미혼 청년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8(4), 1-9.
<https://doi.org/10.21097/ksw.2023.11.18.4.1>
- 강은영, 진미정, & 옥선화. (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135-144.
<https://doi.org/10.6115/khea.2010.48.2.135>
- 구유나 (2023.3.7.). 미혼이 아니라 비혼입니다...비혼이 바꾼 삶의 단면.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4821258>
- 김소정 (2022). 임금근로 비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53(2), 37-62.
<https://doi.org/10.16999/kasws.2022.53.2.37>
- 김순남 (2016). 이성애 비혼여성으로 살아가기: 지속가능한 비혼, 젠더, 친밀성: 지속가능한 비혼, 젠더, 친밀성. **한국여성학**, 32(1), 181-217.
<https://doi.org/10.6115/khea.2010.48.2.135>
- 김은지, & 김효정 (2023). 한국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혼재 속 청년세대의 제도적 결혼 가치. **사회과학연구**, 35(2), 105-139.
<https://doi.org/10.54711/KSSR.35.2.04>
- 김은하, 최혜윤, & 권민혁 (2019). 한국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에 대한 양가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379-401.
<https://doi.org/10.18205/kpa.2019.24.4.003>
- 김화선 (2017). 대학생들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8(6), 217-229. <https://doi.org/10.22143/HSS21.8.6.15>
- 남순현 (2007). 한국형 결혼관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4), 1-27.
- 문지선 (2023). 부모전이기 부부의 젠더의식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과 돌봄 역할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5(4), 106-151.
<https://doi.org/10.21478/family.35.4.202312.004>
- 박은실 (2023). 비혼 1인가구 여성의 비상품시장적 삶 생산은 가능할까?. **여성학연구**, 33(2), 7-40.
<https://doi.org/10.22772/pnujws.33.2.202310.7>
- 신하은, 김나현, & 이재림 (2024). 청년의 삶의 영역별 중요도와 동거의향 및 비혼의향의 관계: 결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4), 47-64.
<https://doi.org/10.21321/jfr.28.4.47>
- 이정하, 박정윤, & 윤나나 (2017).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2), 183-214.
<https://doi.org/10.20406/kjcs.2017.05.23.2.183>
- 인구보건복지협회 (2025).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 (2024년). 인구보건복지협회.
- 임혜경, & 최금순 (2020). 경기도 20대 성차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 정문경 (2023). 비혼 관련 연구 동향 분석-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12), 1313-1327.
- 정승환, 장형심 (2015). 자기결정성이론의 HRD 적용에 대한 논의. **HRD 연구**, 17(3), 99-131.

- <https://doi.org/10.18211/kjhrdq.2015.17.3.005>
- 조선미, 김은정, 이동선, 한진영, 이진숙, 임연규, 손창균, 김근태, & 계봉오(2023). **2023년 여성 가족패널조사(연구보고서 No. 20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미정, 성미애, & 기쁘다 (2023). 성별에 따른 결혼 인식의 세대 차이. **가정과삶의질연구**, 41(1), 93-107.
<https://doi.org/10.7466/JFBL.2023.41.1.93>
- 최선영, 이지혜, & 윤태영 (2022). **가족형성과 사회 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 김태우 (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 방법의 이해 (제2판)**. 서울: 학지사.
-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동향 2024**. 통계청
- 한혜림, & 이지민 (2020). 30-40대 자발적 비혼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현상학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2), 201-214.
<https://doi.org/10.6115/fer.2020.015>
- 황두영 (2024). **생활동반자법과 외롭지 않을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 Apostolou, M., Tekes, B., & Kagialis, A. (2024). What Drives Mating Effort: Fear of Singlehood, Relationship Status, and Self-Esteem. *Adaptive Human Behavior and Physiology*, 10(2), 130-147.
<https://doi.org/10.1007/s40750-024-00239-0>
- Asparouhov, T., & Muthen, B. (2009).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6(3), 397-438.
<https://doi.org/10.1080/10705510903008204>
- Braaten, E. B., & Rosen, L. A.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arital Attitude Scal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9(3-4), 83-91.
https://doi.org/10.1300/j087v29n03_05
- Braun, V., & Clarke, V. (2012). THEMATIC ANALYSIS.
https://doi.org/10.1007/978-1-4614-5583-7_311
- Brown, T. A. (201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Guilford publications.
- Byoun, S. J., Choi, S., & Kim, H. Y. (2021). Exploring the diverse family structures in South Korea: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nonmarital cohabitants. *Societies*, 11(3), 90.
<https://doi.org/10.3390/soc11030090>
- Carr, J. L. (2001). *Exploring family valu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https://doi.org/10.1016/0092-6566\(85\)90023-6](https://doi.org/10.1016/0092-6566(85)90023-6)
- DePaulo, B. M., & Morris, W. L. (2005). Singles in society and in science.

- Psychological Inquiry*, 16(2-3), 57-83.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62&3_0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 company.
- George, D., & Mallery, P. (2024). *IBM SPSS statistics 29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032622156>
- Girme, Y. U., Park, Y., & MacDonald, G. (2023). Coping or thriving? Reviewing 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societal factors associated with well-being in singlehood from a within-group perspectiv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8(5), 1097-1120.
<https://doi.org/10.1177/17456916221136119>
- Hinkin, T. R. (1998). A brief tutorial on the development of measures for use in survey questionnair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 104-121. Hu & Bentler, 1999;
https://doi.org/10.1177/1094428198001001_06
- Kislev, E. (2024). Singlehood as an identit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5(2), 258-292.
<https://doi.org/10.1080/10463283.2023.224193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https://doi.org/10.1111/j.1744-6570.1975.tb01393.x>
- Meir, E. I., & Gati, I. (1981).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4), 1011-1016.
https://doi.org/10.1177/0013164481041004_09
- Park, S. S., & Rosen, L. A. (2013). The marital scales: Measurement of intent, attitudes, and aspects regarding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4(4), 295-312.
<https://doi.org/10.1080/10502556.2013.780491>
- Park, Y., MacDonald, G., Impett, E. A., & Neel, R. (2023). What social lives do single people want?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identifying profiles of social motives among sing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5(1), 219.
<https://doi.org/10.1037/pspp0000455>
- Reynolds, J., Wetherell, M., & Taylor, S. (2007). Choice and chance: Negotiating agency in narratives of singleness. *The Sociological Review*, 55(2), 331-351.
<https://doi.org/10.1111/j.1467-954x.2007.0708.x>
- Spielmann, S. S., MacDonald, G., Maxwell, J. A., Joel, S., Peragine, D., Muise, A., &

- Impett, E. A. (2013). Settling for less out of fear of being sing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6), 1049.
<https://doi.org/10.1037/a0034628>
- Stein, P. J. (1975). *Singlehood: An alternative to marriage*. Family Coordinator, 489-503. <https://doi.org/10.2307/583033>
- Stein, P. J. (1981). *Single life: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St. Martin's Press.
<https://doi.org/10.2307/2068542>
- Tan, C. S., Cheng, S. M., & George, S. (202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ttitudes toward Singlehood Scal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Malaysia and India. *Collabra: Psychology, 7*(1), 24808.
<https://doi.org/10.1525/collabra.24808>
- Timonen, V., & Doyle, M. (2014). Life-long singlehood: Intersection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Ageing & Society, 34*(10), 1749-1770.
<https://doi.org/10.1017/s0144686x13000500>
- Vikat, A., Speder, Z., Beets, G., Billari, F. C., Buhler, C., Desesquelles, A., ... & Sola, A. (2007).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and processes in the life course. *Demographic research, 17*, 389-440.
<https://doi.org/10.4054/demres.2007.17.14>
- Yang, T., Yi, J., Zhu, T., & Liu, T. (2025). Marriage timing and depressive symptoms: insights from social clock theory. *Cogent Psychology, 12*(1), 2435095.
<https://doi.org/10.1080/23311908.2024.2435095>
- Yu, S., Levesque-Bristol, C., & Maeda, Y. (2018). General need for autonomy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of studies in the US and East As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 1863-1882.
<https://doi.org/10.1007/s10902-017-98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Non-Marriage Orientation Scale

Jiwoo Lee¹ Sujin Yang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Marriage has long been considered a core developmental task of adulthood; however, in Korean society, it is increasingly being reframed as a lifestyle choice among the many trends known as *bihon* (non-marriage orientation). Despite its multidimensional nature, no validated instrument has been developed to assess this construct. This study developed and validated a multidimensional Non-Marriage Orientation Scale using two independent adult samples (ages 25-40 years; $N = 1,000$).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genera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The EFA (Study 1) and CFA (Study 2) yielded a 24-item, five-factor structure comprising Non-Marital Orientation, Marriage as a Choice, Non-Marital Fulfillment, Openness to Non-Marital Relationship, and Critical View of Marriage. The scale demonstrated satisfactory reliability and convergent, discriminant, criterion-related, and incremental validity in predicting marriage intentions. MIMIC modeling further indicated that wome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non-marriage orientation than did men. This scale is expected to advance empirical research and policy discourse on the evolving family formation patterns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eywords : Non-marital orientat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